

## 시각예술분야(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

- 일시 : 2015. 3. 6(금) 14:00~18: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 1실
- 심의위원 : 김윤섭, 배혜경, 심상용, 정종효, 최병식

###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의 총 지원신청 건수는 45건, 지원신청 총액은 1,998,039천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미리 보내준 건의 지원신청서, 첨부 증빙서류, 출품작가 포트폴리오 등의 사업계획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개별 신청 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을 공유하고 전체 토론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결정하였다.

### 2. 세부 심의평

본 사업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아트페어의 부스 참가나 한국미술 특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유형과,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아트페어의 특별전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총 45건이 신청되었고, 심의를 통해 총 28건을 선정하였다.

기획프로그램의 경우 지원신청한 사업의 기획력이나 실현가능성이 설득력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기획력의 참신성, 이머징 마켓의 대안 제시 등 기대를 충족할 만한 신청이 많지 않아 큰 아쉬움이 남았다. 3차 공모에 기획프로그램 유형을 다시 접수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 때에는 서류심사와 함께 지원신청단체의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본 사업의 취지가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이니 만큼 수혜 기획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부스 참가 형태가 아닌, 중기 이상의 시장 접근 전략을 갖추고 있는지, 참여하고자 하는 아트페어의 성격과 발전 가능성은 어떠한지, 세계 미술시장의 변화에 따른 잠재성은 어떠한지 등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기획프로그램 유형의 경우 한국 미술시장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논의하였다.

해외 아트페어 참가 부스 지원은 참여하고자 하는 아트페어의 규모와 성격, 소요되는 비용, 신청화랑의 활동경력, 출품 작가 구성 등을 종합 참고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1차 공모에는 최우수급 페어가 포함되지 않아 예산배정과정에서 이를 함께 고려하였다. 그리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갤러리가 작가에게 부스 참가비나 작품 대납 등의 부담을 요구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갤러리들의 해외 마케팅 활동이 강화되고 국내 작가들의 작품 판매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부 갤러리들에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지만 참가작가에게 부스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현금, 작품부담을 막론하고 이에 대한 절대 불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부 신청시 이에 대한 내용과 어졌을 시 지원금 신청 제한 조건을 공지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상 3년간의 지원금지를 반드시 이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 지원사업의 근저에는 작가지원이라는 본질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단순의 갤러리의 상행위를 지원하는 형식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부스비 지원의 상승, 확대된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요구된다는 점과 상통되는 부분이다.

미술품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 심의위원 일동